

음식료

위클리 및 종목 코멘트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음식료 Weekly

메리츠 음식료 김정욱 (6414@meritz.co.kr)

1. 전주 동향

음식료

11월 둘째 주 음식료(식품, 음료, 담배) 주가는 전주 대비 2.3% 상승. 원/달러 환율은 1,128.1원으로 상승. 곡물가는 옥수수(-0.4% WoW), 소맥(-1.3% WoW), 대두(-1.4% WoW), 원당(-5.3% WoW) 기록. 옥수수는 11/10일 유가가 10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예단을 수요 둔화 우려가 옥수수 가격 하락을 이끌. 소맥은 미국 주간 소맥 수출 물량 1,200만 부셀로 집계되며 시장 예상 범위의 최하단에 위치. 미 달러화 강세 영향에 러시아산 소맥 대비 미국산 소맥 수출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며 전주 대비 가격 약세. 대두는 -중 무역 분쟁에 대한 여파가 지속되며 USDA는 18/19 시즌 미국 대두 기말 재고량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 러시아가 대두 재배를 확대해 중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점도 미국산 대두 가격 압박의 요소로 작용. 원당은 브라질 해일화 강세 영향에 따라 상승 펠리를 지속하던 원당 가격은 해일화 약세로 전환함에 따라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양상. 인도의 원당 수출 물량이 국제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가격 하락의 요소

중국 라이신 공급 타이탄한 상황 지속되며 단기간 가격 상승 전망. 다만 기상 여건 향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 상황도 개선 여지 존재. Fufeng, Dongxiao 출하 예정. 단백질 비중 축소 규정 11/1일부터 시행. 메티오닌은 중국 국내 제조업체들의 생산 중단으로 타이탄한 공급 상황. 일부 제조업체 가격 인상 계획 보유. 메티오닌의 수출 세금 환급률 13% → 16%로 인상 소식은 중국 내 제조업체 수출 의지를 제고시킬 전망. Xinhecheng 공장 중단 상태 유지. 쓰레오닌은 재고 압력 지속으로 단기간 약세 지속 전망. Yanfeng과 Dongxiaoxin은 11월 중순 쓰레오닌 공급 완화에 주위하며 라이신 생산 예정. 트립토판은 단기간 가격 안정 전망. 환경 보호 규제에 매화 Tongliang 공장, Ningxia Yipin 공장 생산 중단 중

국내 이벤트는 1. 파리바게트, 서울우유의 우윳값 인상에 따라 파리바게트 흰 우유를 포함한 우유 제품 8종 가격 10% 인상. 200ml제품 가격 기준 950원 → 1,050원으로 상승 2삼양식품, 자체 브랜드 삼양우유 가격 3.9~4.0% 인상. 200ml 제품 750원→780원, 930ml 제품 2,550원→2,650원으로 인상 3. 오리온, 18.4월 출시한 '생크림파이' 날개 기준 9월 말 누적 판매량 2000만개 기록에 이어 한 달만에 1000만개 추가 판매되며 누적 3000만개 판매 달성 4. 롯데푸드, 김천공장 930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 증설투자 결정. 가정간편식(HMR) 사업 확대에 따른 제조 역량 강화가 목적 5. 롯데칠성, 생수 '아이시스 8.0' 18.9월까지 누적 매출 6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증가. 300ml 제품 매출 +40%YoY, 1L 제품 매출 +182%YoY 한 점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

2. 금주 전망

음식료: 3Q18 Preview 전년도 높은 베이스 효과로 YoY 실적 보다는 QoQ 개선 및 예상치 상회 종목에 주목: CJ제일제당, 오리온, 대성, 매일유업 실적 호조 예상. KT&G는 실적은 부진하나 19년 수출 회복 기대감 유효

3Q18 Preview CJ제일제당 3Q18 실적 전망치는 매출액 48,933억원 +10.9% YoY, 영업이익 2,558억원 -5.0% YoY 으로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 4.1% 상회, 영업이익 4.3% 하회 예상. 영업이익 하회는 대부분 대한통운 실적 변동에 기인하며 대한통운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2,033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충족할 전망. 추석 효과와 주력제품/HMR 매출 호조 영향으로 본업 영업이익은 예상치 상회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오리온 3Q18 실적은 매출액 4,970억원 -14.3% YoY, 영업이익 790억원 -12.1% YoY 으로 컨센서스 대비 각각 2.9% 하회, 4.3% 상회 예상. 전년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이유는 회계변경에 따른 매출조정과 3Q17 사드 직후 중국법인의 대규모 1+1 할인 매출의 기저(基底) 때문. 2분기 실적 부진 이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월 단위로 개선되고 있는 중국 매출액 회복에 주목할 시점으로 판단. 매일유업 3Q18 실적은 매출액 3,316억원 -2.0% YoY, 영업이익 220억원 +26% YoY 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예상. 매출액은 회계변경 영향으로 2% 감소, 전년 동월 기준 1-2% 성장 흐름 유지. 중국 수출 분유, 백색시유, 상하목장 등 매출 성장 주도 카테고리 외형 확대 지속. 전년 대비 마케팅비 절감 효과로 영업이익 성장 흐름은 이어질 전망. 3Q18 Review KT&G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5.3% 하회했지만 당사 추정치 3,601억원 및 낮아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 특히 수출과 관련하여 현지 판매가 순항 중이며 환율 영향이 대부분이라는 설명 4분기말 1분기초 안전재고 소진과 재주문이 예상된다는 점 긍정적. 과거 13-14년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19년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대 예상. 배당에 대한 가이드언스가 다소 보수적이지만 4,000원이라는 절대 수준이 변동 없음을 확인. 수출회복 시그널 발생이 추가 상승 트리거가 될 전망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관심종목

매일유업 (267980)

3Q18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동일 기준 1-2% 성장세, 백색시유, 수출분유, 커피음료, 상하목장 등 매출 성장 주도. 매출 성장과 백색시유의 수익성 개선, 전년비 마케팅비 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도 매출 흐름과 유사한 성장 예상. 시장 컨센 220억원대 부합 예상. 가격 인상은 백색시유 1위 서울우유, 2위 남양유업이 발표를 완료, 검토중인 단계로 판단. 백색시유 매출비중 30% 차지하는 B2B 채널의 매출 성장흐름 지속. 백색시유 전체적으로 낮은 한 자리 수 매출 성장 예상. 수익성 측면에서 1Q18-3Q18 QoQ 적자폭 축소는 지속 중. 발표유는 3Q18는 프로모션 효과로 매출액은 5% 이상 성장세. 커피음료 3Q18 매출액 5-6% 성장, 폭염과 경쟁심화가 맞물리는 환경에서 무리한 판촉 경쟁은 지양했음. 국내 분유 매출액 감소폭 축소 중인 점 긍정적. 수출분유 1Q18 70억원, 2Q18 110억원 달성, 3Q18 120억원 예상되며 전기비 증가세 유지. 18년 400억원 달성 가능성은 높은 상황

오뚜기 (007310)

수산물류(미역, 참치, 다시마, 통조림 등) 한 자리 수 후반 감소. 면류(라면, 당면, 국수, 냉장면 등) 한 자리 수 중반 증가. 라면류 한 자리 수 중반 증가 쌀류(즉석밥, 씻어내온쌀, 킷밥) 한 자리 수 후반 증가. 유지류(참기름, 식용유, 마가린, 쇼트닝, 고급유) 한 자리 수 초반 감소 냉동식품류(만두, 냉동피자, 볶음밥 등) 한 자리 수 초반 감소. 기타류(선물세트 등) 한 자리 수 초반 감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1월 12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1월 12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1월 12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